

哲學概論

李載薰

一. 變遷이愛知 卽 哲學을 學問的으로 처음 規定한이는 피타고라스(註1)Phitagoras라는 哲學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 靈魂을 淨化하는 것 卽 哲學함으로써 靈魂을 淸淨히 하여 輪廻의 苦界로부터 解放되어 本來의 故郷에 도라간다고 하였다. 哲學은 말하자면 靈魂을 救濟하는 所謂 一種의 宗教이었다. 故로 이 피타고라스敎團에서 學習하는 特殊한 科學 例컨대 淫樂理論數理 天文學 등이 다 이 靈魂의 淨化와 어떤 不離의 關係를 가지고 있었음을 容易히 推察할수 있다. 이 靈魂과 哲學의 密接한 關係로 말하면 其後 大聖 소크라테스(註2)에 있어서도 그 中心問題이었다.

哲學은 靈魂을 돌보는 것 卽 靈魂의 善 또는 眞理를 顧慮하는 事業이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生活中에서 『가장 重大한 事』라고 하였다. 이 靈魂을 돌본다는 것을 仔細히 말하면 自己自身の 固有한것에 눈을 뜨게하는 것 모든 外部的 誘引 例하면 名聲 財實 같은 關係로부터 마음을 解放시키므로 그 內容의 本質인 自我眞理에 關心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卽 哲學이다. 智慧라는것은 이 本質的인 者에 對한 智識을 말하는것이므로 다른 哲學者의 말하는 客觀的 自然에 對한 知識이 아니라 사람의 生活中에 무엇이 가장 尊敬할만한 貴한것인가 하는 各個人의 尊嚴性 또는 이 尊嚴性을 自覺시키므로써 우리의 生活을 改造하려고 하는 實踐的 指導的 任務를 가진것이였다. 故로 當時 소피스타이(註3) Sophistai (後世에 詭辯論者라는 惡名을 입게 되었다라는 一群知者가 가르키는 實用的 知識技能을 意味하지 않음은 無論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나는 智者가 아니다. 오직 智를 愛慕追求할 따름이다. 智者는 오직 神뿐이오 愚昧한 者는 知를 否定하며 追求하지 않는다고 하여 單 知者 卽Sohhistal와 區別한것은 有名한 말이며 그 哲學에 對한 態度를 살펴 볼수 있다.

이 智慧를 愛好 追求한다는 말(哲學)의 概念에 哲學的 意識를 준이는 소크

라테스의 弟子인 푸라톤(註 4)Platon이라는 哲學者이다. 푸라톤은 師와 같이 智였다. 智慧는 곧 眞知이다. 眞知는 恒常 同一 不變하는者 即 『있는것』에 對한 認識을 마함이다. 恒常 變化 生滅하는것에 關하여서는 眞知를 얻을수 없다. 이 언제나 『있는』者를 푸라톤은 아데아 또는 에이도스Idea, Etdos(心 理學上 現實과 區別하여 理念이라고 解釋한다라고 마랑였다. 이 理念의 世界 이라 即 眞實한 實在이라고 할것이며 感覺的 單 個人個人的 意見의 世界에 不外하다. 意見은 知識이 아니다. 現實의 우리가 經驗하는것은 무엇이나 이 理念을 떠나서는 있을수가 없는 것 따라서 理念의 힘을 빌지 않고는 어떤것 에 關하든지 眞知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理念에 關한 智識은 現實을 組織하 는 힘이다. 이 理念에 關하여서는 푸라톤 自身の 動搖 變遷 發展이 있는것 같이 보이니 여기에 이 以上 論反할 必要가 없다. 何如ㅎ 푸라톤에 있어서는 哲學은 恒常 不變하는 存在를 追求하며 아는것이었다는것은 以上 論한바로 알것이다. 푸라톤의 弟子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註5)는別로이 愛라는것 을 들어 말하지 않았다. 아氏는 今日 우리가 말하는바 모든 科學 即 物理學 詩學 같은것을 包含한 一般的으로 舉間이라고 하는것을 哲學이라 하였다. 故 로 아리스토텔레스는 近代 科學的 知識에 對하여 哲學을 區分함과 더불어 一般哲學이라고 하는것으로부터 特히 第一哲學이라는것을 세웠다. 第一哲學 은 事物의 根本原理를 研究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哲學에 相 當할것이지만 後世人은 이것을 形而上學이라고 名稱하였다. 이러한 智慧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實利實用의 念을 떠나 眞理 그自身을 追求하려 는 即 客觀的 眞理를 觀察 考究하려는 그 理論的 學問이었다. 이理論的 學問 에 對하여 實踐的 學問을 論하였으나 그것은 여기에 論及하지 않는다.

註1. 피타고라스 Phitagoras 第六世紀 前半 사모스島에 出生, 同世紀後半 南이태 리 植民地 크로톤에서 宗教的 教團을 組織하여 哲學研究와 政治活動에도 從事하 면서 이 教團을 指導한것 같다. 소크라테스, 푸라톤에게 多大한 影響을 준 重要한 人物이다. 仔細하고 正確한 傳記는 알수 없다.

註2. 소크라테스 Sokratas 希臘 아데나에 出生, 今日에 말하는 所謂 學究的 哲學 者가 아니다. 日常 市井에 나가서 市民과 青年의 訓育에 從事하였으므로 著書라 고할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活動의 形式 意義는 今日 그 弟子인 푸라톤 의 初期作品인 對話篇으로써알수 있다. 國家가 祭祀하는 神을 信奉하지 않고 恒 常 自己안의 神靈을 믿는 無神 不敬한 者이라고 하였으며 또 틀린 道德思想을 鼓 吹하므로 青年을 腐敗시킨다는 罪名으로 七十歲를 넘어 紀元前 三九九年 死刑의 宣告를 받아 毒杯를 마시고 世上을 떠났다.

註3. 소피스타이 智慧를 愛好(哲學)한다는 者와 知者라는 字는 希臘語學上으로는 意味의 差異는 볼수 없으나 이것을 意味上 明確히 區分하여 使用한것이 소크라테

스이다. 知者 卽 소피스테스를 普通, 詭辯論者라고 翻譯하는것은 잘못이니 注意할 것이다. 希臘에서 말하는 知者라는것은 當時 希臘 都市의 民主的時代에 있어서 國家의 有用한 人物 EH는 定界에 活動하려는 青年子弟는 所謂 辨證術을 많이 要求한것인데 이 辨證論術 卽 有名한 知識技能을 教授하는者를 知者라고한 것이다. 自己知識을 돈 받고 팔아 生活하는 教師라는 職業을 가진者이다. 이것이 知者의 本來의 意味이다.

註4. 푸라톤 Platon은 紀元前 四二七年 아테나 名文家에 生長하였다. 豊富한 藝術的 素質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찍 소크라테스의 感化를 받아 一生을 哲學研究와 政治的 活動에 從事하였다. 스승되는 正義의 人인 소크라테스의 死刑宣告 받음을 보고 哲學을 冒瀆하는 아테나의 政界에는 一時 그의 活動을 斷念했던것처럼 보이 나 其實 그는 平生도록 政治的 活動을 끊지 않았다. 未完成의 作品이지만 八十餘歲의 高齡에 쓴 最終의 作品이 『法律篇』으로 政治問題를 論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것이다. 眞正한 政治는 哲學的 認識中 能力을 가진者 或은 哲學者가 統治者가 되어야만 正義의 國을 建設하면 個人의 幸福 正善한 生活을 kgrpgksmsrjt이 한 信念이었다. 이것을 實地로 具體化하려고 數次 生命의 危險을 무릅 쓰고 시게리아島 시락사라는 곳에 가서 前後 十餘年동안 國家의 理想을 實現하려는 政治的 活動에 從事하였다. 아테나의 西北部에 乳名한 아카데미 Akademeian(學校)를 設立하고 國民教育에 從事한것은 單 學問을 教授할뿐 指導精神이었던것을 잊지 아니한다. 初期의 作品은 純全이 스승을 追慕 回想하는 對話問答이다. 一平生 獨身으로 지낸것 같다.

註5.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푸라톤의 首弟子이다. 그는 紀元前 三八四年 마케도니아에 가까운 스타게이로스라는 곳에 出生하였다. 그의 父親은 마케도니아 王의 侍醫이었다. 푸라톤의 學校에서 二十年間 스승의 指導下에 著述도 하였으며 助教授格으로 있었다. 스승의 死後는 小亞細亞 앗소스라는 곳에 學校를 設立하고 哲學研究와 教授에 從事하였다. 여기에 한가지 注意할것은 스승 푸라톤이 哲學의 入門을 數學에 둬에 反하여 아氏는 生物學에 돌것이다. 이것이 스승의 學說로부터 分離의 出發点이었다. 그後 三四二年 마케도니아王의 招聘을 받아 當時 十三歲인 王子 알렉산도르스教育의 任務를 맡았으므로 政治的活動의 機會를 많이 얻었다고 볼수 있으나 이 方面에 大王을 指導할 能力이 없었던것 같이 보인다. 푸라톤이 이地位에 있었다면 하는 感을 禁할수 없다 三三五年에 다시 아테나에 도라와 市의 南効에 류게이온 Lykeion이라는 學校를 設立하고 많은 學徒의 人氣를 끄는 講義를 하였다. 弟子와 같이 校庭의 散步道(페리파도스)를 論談하며 思索하면서 散步하여으므로 이 學校의 學者들을 『페리파도스』라고 稱하였다. 앗소스學校 設立 當時 結婚하였으나 死別하고 再次 結婚하였다. 그 倫理學講義의 編者 니코마코스 Nikomachos는 卽 第二妻로부터 얻은 子息이 있다. (끝)